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연구관련 해외사례조사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 출장(조사)목적

○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유사사례 관련 제도 및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진과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진사례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활용코자 함

□ 출장(조사)개요

○ 기간 : 2009. 9. 14 ~ 9. 21<6박 7일>

○ 조사지역 : 중국 시안(서안)시, 뤄양(낙양)시, 베이징(북경)시

○ 조 사 단 : 6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원태 연구위원)
- 국토연구원(양하백 선임연구위원, 김천규 연구위원)
- 충청남도(김영인 문화예술과장)
- 공주시(이창주 문화예술과장)
- 부여군(고대석 문화예술담당)

○ 조사내용

- 중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관련제도 및 시책 검토
- 주요 사례지역별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방향 및 전략, 추진과정, 운영 및 실태, 추진성과 및 효과,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법 조사 등

□ 조사일정 : 9월 14일 ~ 9월 20일(6박 7일간)

일 시	세 부 일 정
9/14(월)	○ 시안(서안) 도착 현지조사 시작 - 진시황릉(秦始皇陵), 병마용(兵馬俑), 화청지(華淸池) 등 답사
9/15(화)	○ 섬서성 문물국(문화재관리국) 및 여유국(관광국) 방문·회의 ○ 시안성벽(西安城墻) 답사 < 시안 → 뤄양 이동 >
9/16(수)	○ 뤄양(낙양) 현지조사 - 용문석굴(龍門石窟), 고분박물관(古幕博物館) 답사 ○ 뤄양시 문물관리국(문화재관리국) 및 여유국(관광국) 방문·회의 ○ 수당고성(隋唐古城)(동문 및 해자) 복원 현장답사
9/17(목)	○ 뤄양 현지조사 - 소림사(少林寺), 탑림(塔林), 숭산(嵩山) 답사 < 뤄양 → 베이징 이동 >
9/18(금)	○ 베이징시 문물국, 관광국 방문은 중국 건국절 60주년 행사준비로 취소 ○ 베이징(북경) 현지조사 - 만리장성(万里長城), 명13릉(明十三陵) 답사
9/19(토)	○ 북경 현지조사 - 천안문(天安門), 자금성(故宮), 천단공원(天壇公園), 수도박물관(首都博物館) 답사
9/20(일)	< 북경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 출장성과 자체 정리회의 개최 후 해산

2. 주요 출장지(조사지역) 현황

(1) 오래된 역사도시 서안(西安)

① 서안은?

○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도(古都)로 꼽히는 역사도시로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중 하나

○ 기원전 11세기부터 서기 10세기까지 13개의 왕조나 정권이 서안에 도읍을 정하거나 정권을 세움

○ 서안 1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서주(西周), 진(秦), 서한(西漢), 당(唐)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

② 3,000여 년의 역사

○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세운 호경(鎬京)을 비롯하여, 13개 왕조의 73명의 황제가 1,062년 동안 도읍을 두었던 곳으로 옛날에는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음

○ 가장 번영했던 당대(唐代)에는 동서 9.5km, 남북 8.5km의 규모에 인구 100만이 넘는 계획적인 대성곽 도시를 이루어 멀리 서방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음

③ 실크로드의 기점

○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기점이었던 서안에서는 수많은 역사인문경관을 볼 수 있음

○ 서안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고성벽과 돌로 된 서고(書庫)라 불리는 비림박물관(碑林博物館), 대안탑(大雁塔), 소안탑(小雁塔) 등의 건축물은 물론 이려니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진시황 병마용갱 그리고 중화민족의 발상지 중 하나로 반파(半坡)유적, 모계사회부터 부계씨족까지의 변천을 볼 수 있는 앙소(仰韶)문화와 용

산(龍山)문화의 유적지 등 중화고대문명의 진귀한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으니 "오천년의 중국역사를 서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님

④ 사적이 풍부한 역사도시

○ 진시황 병마용(秦始皇兵馬俑)은 시안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로 1974년에 발견된 후로 현재도 발굴이 계속되어 현재까지 3개의 갱(坑)이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 1호 갱에만 6,000여 병마가 실물 크기로 정연하게 늘어서 있으며 이들 병사용은 각기 표정이 다르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음

○ 화청지(華淸池)는 서안에서 25㎞ 정도 떨어진 여산(驪山) 산록에 있는 온천으로 역대 제왕이 행궁 별장을 세워 휴양했던 곳이며 중국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요 문화재임

○ 대안탑(大雁塔)은 서안시 남쪽 4㎞ 지점의 자은사(慈恩寺) 경내에 있으며 서안시의 상징적인 탑 중의 하나

○ 건릉(乾陵)은 서안에서 60km, 건현에서 서북쪽으로 6㎞ 떨어진 양산(梁山)에 있으며, 고종과 황후 측천무후(則天武侯)를 합장한 곳

○ 이외에도 종루(鐘樓), 고루(鼓樓), 무릉박물관(茂陵博物館), 범문사(法門寺), 서안성벽(西安城墻) 등의 유적지가 있음

⑤ '장안(長安)'의 역사

○ 장안은 당(唐)나라 때의 서안을 부르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친근한 명칭임. 당 태종 때까지만 해도 장안의 재정이 궁핍했는데, 당 고종 때부터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다가 현종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며 로마와 함께 세계의 중심지로 등장

- 당시 장안은 동서 10Km, 남북 8Km에 이르는 영토에 인구는 150만명으로서, 이 중 외국사신들의 수는 약 4천명을 헤아렸음

○ 관중분지(觀衆盆地)의 중앙부, 남쪽에 종남산(終南山)이 솟아 있는 곳에 위치한 '서안'은 오늘날 면적 9,983㎢, 섬서성의 성도이며, 행정구역은 8개의 구와 5개의 현으로 나뉨

○ 지금 서안의 인구는 약 650만~700만 명이며, 중국의 신흥 내륙공업지역 가운데 하나로 20여 개의 대학과 연구소들을 갖춘 교육도시이기도 하며, 그 밖에 중국의 군수공장, 우주연구센터 등 핵심적인 산업체가 입지



□ 진시황릉(秦始皇陵)

○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능이며, 능묘는 37년간이 걸려 완공되었는데 무덤의 둘레가 6㎞, 높이는 40m에 달함

○ 무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야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아직 내부는 개발이 되지 않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내부는 볼 수 없음

○ 진시황이 무덤을 설계할 때 훗날의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은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함정들을 설치해 두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비밀을 풀 수 없어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여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때 발굴 한다고 함

○ 따라서 진시황릉까지 간다고 해도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릉 위에 오르는 정도의 관광을 할 수 있음

○ 요새는 릉 주변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미니 전동차나 마차로 릉주위를 돌거나 공원 주변에 전시해 놓은 옛 유물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

□ 병마용(兵馬俑)

○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작한 것으로 보임

○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고 있으며, 서안시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진시황릉에서 북동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위치

○ 이곳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그제서야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도 발굴이 진행 중임

- 현재까지 3개의 갱이 발견되었으며 700여개의 실물 크기의 도용(陶俑)과 100개가 넘는 전차, 40여필의 말, 10만 여개의 병기가 발굴

○ 병기들 대부분이 실제무기이며 현재는 창고에 보관 중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도용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 복장,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고 매우 섬세하게 제작되었음

○ 병마용 갱은 총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호 갱은 당시 농민이 처음 발견한 것이고, 후에 발굴과정에서 2, 3호 갱이 발견

- 1호 갱은 세 곳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동서 길이가 약 230m, 남북으로 약 62m로 총 면적이 12㎢ 정도임. 1호 갱은 동서 방향으로 긴 모양으로 장군과 병사가 배열

- 2호 갱은 면적이 약 6000㎡로서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호 갱은 발굴되고 있는 상태로 전시

- 3호 갱은 면적이 520㎡으로 凹모양으로서 병마용은 양쪽으로 늘어서 있으며, 역시 현재까지도 발굴작업이 진행중

○ 학자들은 발견된 3개의 갱외에도 진시황릉 근처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더 많은 병마용 갱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화청지(華淸池)

○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대규모의 당나라 왕실정원으로서, 고대부터 수려한 풍경과 질 좋은 지하 온천수 때문에 역대 제왕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장소임

○ 화청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일찍이 서주(西周)시기, 주유왕(周幽王)이 이곳에 려궁(驪宮)을 지었으며, 후에 진시황과 한무제도 이곳에 행궁(行宮)을 건립

○ 특히, 당 현종 천보 년간에 건설한 궁전누각이 가장 화려하며 이때 정식으로 "화청궁(華淸宮)"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으며, 당시(唐詩) 중에는 화청지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시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음

○ 화청지 동쪽구역에는 정말약(郭末若)이 쓴 '화청지'라는 금자편액이 걸려있으며, 구역 내에는 하화각, 비하각, 오간정(1936년 서안사변 당시 장개석이 머물던 곳) 등의 건축물이 있고, 그 중 온천석벽에 있는 <온천송비(溫泉頌碑)>는 중국 비석예술 중에서도 우수한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음

○ 화청지 온천의 수질은 매우 깨끗하며, 수온은 항상 43℃를 유지하고, 다량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으며, 또한 매일 육각정 무대 앞에서는 당나라 시기를 재현한 공연이 열림



□ 서안성벽(西安城墻)

○ 서안성벽은 중국에서 보전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가장 완전한 고성중의 하나, 전체 길이가 13.6km, 높이가 12m, 폭이 15m로 높고 두터운 고성벽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

○ 이 성벽은 명나라 홍무제 3년에서 11년까지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그 역사가 이미 600년에 이름. 고대전쟁사를 보면, 이 성벽은 유일한 출입통로로서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방어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음

○ 성벽은 동서남북의 4개문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주변에는 넓고 깊은 호성하(護城河 : 해자)가 흐르고 정문에서 시작되는 정로를 가로지르는 조교(吊橋)가 놓여있음

○ 1982년 7월에는 섬서성정부의 주창아래 서안시민 수십만 명이 힘을 합쳐 독특한 풍격의 환성공원(环城公園)을 조성했는데, 성 정상부분에는 조그마한 화원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음. 서안성벽은 단지 역사적인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서 공원과 성, 길, 물이 어우러진 공원이 조성됨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

< 기타 문화재(其他文物) >

○ 우리 답사단은 진시황(秦始皇)의 황궁인 아방궁 방문을 희망하였지만, 지금 있는 건물은 문화재 복원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민간에서 관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는 말을 듣고 방문하지 않았음

○ 그리고, 648년 당 황제 고종이 652년에 건립한 후 당(唐)나라 현장(玄奘)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대안탑은 차량이동 중 그냥 지나치며 관찰하였고,

○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현대화된 역사박물관으로 인정받는 섬서성 역사박물관(陕西省歷史博物館)과, 서안의 삼학가(三學街)에 있는 비림박물관(碑林博物館)도 조사하고 싶었지만 한정된 일정관계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2) 역사문화도시 - 낙양(洛陽 뤄양)

① 하남성

○ 황하의 남쪽에 펼쳐진 곳이라고 하여 하남성(河南省)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고대문화의 발상지 중 하나로 고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6대 고도 중에서 낙양(洛陽), 개봉(開封)이 이 성안에 모두 있고 성도인 정주(鄭州)도 35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임

○ 이렇게 고도가 많아서 그런지 하남성에는 유명한 유적과 유적지도 많은데, 그 숫자만 해도 130여만 건으로서, 개봉의 소림사(少林寺)와 낙양의 용문석굴(龍門石窟)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며 중원문화의 발양지인 하남을 대표할 만함

○ 총면적은 16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9천만 명이고 한족, 회족, 몽고족, 만주족 등이 전체 인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곳의 주요 농산물은 밀, 담배, 면화, 콩 등이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구조로 산과 평원이 반반씩 차지



② 낙양

○ 낙수(洛水)의 양지(陽)에 자리 잡고 있다하여 이름 붙여진 낙양은 화하문명(華夏文明)의 주요 발상지중 하나로 황하(黃河)의 중류인 하남성(河南省) 낙하(강)[洛河]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서부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원전 770년 주평왕(周平王)이 이곳으로 도읍지를 정한 이후 역사상 하(夏), 상(商), 서주(西周), 동주(東周), 동한(東漢), 조위(曹魏), 서진(西晋), 북위(北魏), 수(隨), 당(唐), 후량(后梁), 후당(后唐), 후진(后晋)에 이르기 까지

13개의 왕조가 이곳에서 수도를 삼았었음

○ 이곳은 중국정부가 맨 처음으로 지정한 역사문화도시이자 7대 고도(七代古都)중의 하나로서 풍부한 인문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 용문석굴(龍門石窟)은 중국 삼대석굴 중 하나
- 백마사(白馬寺)는 중국 제일의 국가관할 불교사원
- 낙양고묘박물관(洛陽古墓博物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묘군임
- 이외에도 이정묘(二程墓), 백원(百園), 관림(關林) 등을 비롯한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낙양을 역사도시로서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음

○ 또한, 그 역사만큼 수공업제품의 수준 역시 매우 뛰어난데 당삼채(唐三彩), 궁등(宮灯), 방청동(傍靑銅) 등의 제품이 매우 유명하다. 부근 일대는 낙하(洛河)연안의 소분지로, 예로부터 화북평원(華北平原)과 위수분지(渭水分地)를 잇는 교통요지를 이루었음

○ 오늘날의 낙양은 정주(鄭州)와 더불어 하남성의 2대 공업도시가 되었다. 룽하이철도(連云港-蘭州)와 쟈오즈철도(焦枝鐵道 : 焦作－枝城)의 교차점이며, 310－207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고, 민항(民航)도 통함

○ 문화유적으로는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인 백마사(白馬寺), 중국 미술사상 중요한 문화재로 꼽히는 용문석굴(龍門石窟), 이밖에 천진교(天津喬), 관린(關林), 낙양고분박물관(洛陽古墓博物館), 목단공원(牡丹公園), 백거이묘(白居易墓) 등 명승지가 많음

□ 용문석굴(龍門石窟, Longmen Caves)

○ 둔황敦煌의 막고굴(莫高窟), 대동大同의 운강석굴(云崗石窟)과 함께 중국 3대 석굴로 꼽힘. 하남성과 낙양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하며, 명성에 걸맞는 규모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곳을 보러 낙양에 들르는 여행객이 대부분일 정도

○ 이곳은 하남성 낙양시 남쪽 13㎞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백거이묘가 있는 향산(香山)과 용문산(龍門山)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음. 이곳의 시작은 북위 효문제(北魏孝文帝) 때에 대동에서 이곳 낙양으로 천도했을 때부터 운강석굴을 계승하는 형식으로 처음 조성하였고 그 작업이 동서위(東西魏),

북제(北齊), 북주(北周), 수(隨), 당(唐)에 이르는 400년간 계속되었음

○ 현재는 2345여 개의 석굴, 2800여 개의 비문, 50여 개의 불탑, 10만 개 정도의 조각상이 남아있는데, 용문석굴은 현존하는 종교, 미술, 서예, 음악, 의료, 건축 등 방면의 살아있는 역사 자료로서, '대형 돌조각 예술박물관'이라고도 칭해짐

○ 용문석굴은 주로 북위시기와 당대 측천무후(則天武侯)시기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규모가 가장 크고 유명한 굴은 당대 측천무후 시기에 만들어진 봉선사석굴(奉先寺石窟)이며, 이외에 용문석굴의 대표적인 동굴로는 고양동(固陽洞), 빈양동(賓陽洞), 연화동(蓮花洞), 약방동(藥方洞), 간경사(看經寺), 만불동(万拂洞), 잠계사(潛溪寺), 대만오불동(大万伍拂洞) 등임



□ 중국 유일의 고묘박물관(古墓博物館)

○ 고묘박물관은 낙양시 북쪽교외 망산총(邙山冢)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유일의 고분박물관으로서, 전체면적 3만㎡에 건축면적만 7,60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다량의 옛 생활기구와 장식품 등 부장품과 서한, 위진 시기의 토용 그리고 당대의 당삼채 등을 전시

○ 박물관은 크게 지하와 지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지상에는 한대 백옥(漢代白玉)으로 만든 망루(望樓)와 서막대전(序幕大殿), 도서자료실, 전시실, 사각

루(四角樓), 망경정(望景亭)등이 있으며, 지하에는 박물관의 핵심으로 서한(西漢)부터 북송(北宋)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전형적 형태의 웅대한 고묘 25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벽화묘군이 가장 유명

○ 낙양의 한묘(漢墓)벽화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 현재 모두 10개의 고벽화묘를 참관할 수 있는데, 서한의 타귀도(打鬼圖)벽화묘, 서한귀족 복천추(卜千秋)벽화묘, 동한의 출행도(出行圖) 벽화묘 등이 있음



□ 중국 선종의 본산 소림사(少林寺 : 샤오린스)

○ 중국 제일의 선종사찰이자 소림파무술의 발원지인 소림사는 정주(鄭州)와 개봉(開封) 사이에 있는 등봉시(登封市) 중악숭산(中岳嵩山)에 위치해 있으며, 소실산(少室山) 아래의 무성한 숲속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소림사'라고 불리게 됨

○ 북위 태화 19년(495년)에 효문제(孝文帝)가 인도 승려 발타대사를 위해 지어졌으며, 지금까지의 역사만 해도 1,500년으로 후에 선종의 시조가 됨과 동시에 소림사는 중국 선종의 조정이 되었음

○ 흔히 소림사는 달마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사실은 약 1,500년 전 북위의 효문제 때(495년) 인도에서 온 발타선사가 창

건했음. 전설에 따르면 발타선사는 여섯 명의 친구와 함께 출가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성불하고 발타만 부처가 되지 못하였는데, 그래도 낙망하지 않고 구도의 길을 떠난 발타는 마지막으로 중국에 이르러 효문제를 만나게 되고, 효문제의 명으로 소림사를 세운후 30년간 소림사에 머물다가 떠났다고 함

○ 소림사하면 달마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달마대사의 면벽(面壁) 수련은 널리 알려져 있음. 면벽 수련은 9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면벽은 움직임이 없는 벽과 같이 정신의 동요가 없게 하는 수련 과정임. 면벽을 마친 후 신체가 많이 약해진 달마대사는 건강회복을 위한 신체수련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 소림파 무술의 일부가 되었다고 함

○ 특히 오늘날 소림사는 무술로 유명한데, 소림무술은 수당(隋唐) 시기에 이미 세상에 알려졌으며, 송대(宋代)에는 독특한 풍격으로 '소림파(少林波)'라는 중국 무술 중 하나의 문파가 되었음. 소림사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많은 유적들이 손실되긴 했지만, 여전히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문물들은 모두 오랜 역사와 예술적·과학적 가치를 지님



□ 기타 문화재

○ 정주와 개봉 사이에 있는 등봉시(登封市) 중악숭산(中岳嵩山)은 소림사를 답사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 깎아지른 절

벽이 만들어낸 절경을 감상하였지만,

○ 낙양시 동북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위(漢魏)의 낙양성내에 있는 중국 제일의 사찰 백마사(白馬寺)와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장군인 관우의 머리가 묻힌 관림(關林) 등은 일정상 방문하지 못하였음

(3) 세계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북경(北京 : 베이징)

① 북경

○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3천년 역사의 고도이며 중국의 수도로서, 중국의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만리장성을 비롯하여 고궁, 이화원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거리들이 무궁무진하여 날이 갈수록 관광도시로서 그 명성이 높음

○ 총면적은 16,000㎢이며, 서·북·동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가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며, 기후는 온난습윤하며 사계절이 분명하여 봄·가을이 짧은 반면, 겨울과 여름이 비교적 길며, 인구는 약 1,090만 명이며, 그 중 시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500만 정도

② 북경의 역사

○ 중국의 수도인 북경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고대 전국(戰國)시대에 잠시 연(燕)나라의 수도였다가 원나라 때 몽고족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북경을 수도로 정한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수도로서 입지

○ 오늘날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인 이곳에는 약 50만 년 전 이미 고인류 '북경인'이 살았고 도시건설역사는 BC 1,0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금(金), 원(元), 명(明), 청(淸)대를 거쳐 약 800년간 수도였음

③ 오늘날의 북경

○ 오늘날의 북경은 발달된 현대적 도시로서, 중국의 정치, 문화, 과학, 상업 등의 중심도시이자 과거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어 관광도시로도 유명

○ 북경은 중국의 수도이며 전국의 정치, 경제, 문화 , 교통과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화북평원의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시역(市域)은 16구(區)·2현(縣)으로 나뉘어 있음

○ 북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웅장하고 화려한 고대건물과 황실원림, 궁전과 사원들이 현대 건물과 서로 어울려 있고, 수려한 원림과 녹지가 그 사이에 펼쳐져 있어 어디서나 독특한 민속적인 풍경을 감상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명승고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리장성(万里長城), 고궁(故宮), 천단공원(天壇公園), 이화원(頤和園), 주구점 북경원인 유적 등이 있음



□ 천단공원(天壇公園, 티엔탄공원 : 세계문화유산, 1998)

○ 명·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곳으로, 북경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면적은 270㎡인데 명 영락(永樂) 4년(1406)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영락 18년(1420)년에 완성

○ 천단은 '하늘'을 상징하는 사당 건축물로, 명·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임. 당시의 황제에 봉해진 자들은 스스로를 '천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자연을 숭배했으며, 천지를 숭배하고 제

사를 지내는 것은 제왕의 중요 업무였으므로 고대 설계사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힘을 다했음

○ 천단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명확하게 내벽과 외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의 벽은 원형, 남쪽의 벽은 사각형으로 원형은 하늘을 상징하고 사각형은 땅을 상징함. 이것은 중국 고대의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에 부합하는 것임. 북쪽 벽은 또한 남쪽 벽에 비해서 높은데, 이것 또한 '천고지저(天高地低 :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의 의미를 나타냄

○ 북쪽에는 기년전(祈年殿)과 황건전(皇乾殿)이 있고, 남쪽에는 원구단(圓丘壇)과 황궁우(皇穹宇)가 있음. 천단공원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은 기년전(祈年殿)으로, 황제가 오곡이 풍성하기를 빌던 곳인데, 삼중 처마로 된 원형 궁전이며, 높이는 38m임



□ 명13릉(明十三陵, 밍쓰산링)

○ 명나라 13명 황제의 능묘로서, 북경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창평현(昌平區) 천수산(天壽山) 기슭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약 120㎢임

○ 명 왕조가 북경으로 천도한 후 13명의 선조 황제의 릉을 이곳에 이장하였는데, 명나라 선조의 장릉(長陵)이 명 영락7년(1409년)에 세워진 것을 시작

으로 하여 이후에 11개의 릉이 장릉의 양 옆으로 세워졌으며, 명 송정제 주유검(朱由檢)의 사릉(思陵)이 마지막 릉으로서, 청 순치(順治) 원년(1644년)에 정릉(定陵)이라고 칭해지고 땅 위에 건축하였음

○ 명말(明末)과 청초(淸初) 시기의 많은 전쟁들과 그 이후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청 건륭(乾陵) 50~52년(1785~1787)에 비교적 큰 복구공사가 진행되었음

○ 현재는 장릉(長長), 정릉(定陵), 소릉(昭陵) 세 곳과 신도(神道) 네 곳만이 대외에 개방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릉 지하궁전은 1956년에 최초로 발굴한 황제능묘인데, 지하궁전은 높이 27m, 면적 1,195㎡의 완전한 석조구조로서 견고하고 장엄함



□ 자금성(紫禁城, 쯔진청 : 세계문화유산, 1987)

○ 북경시의 중심에 위치한 명·청대의 황궁으로서, 중국에서는 고궁(故宮)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천자의 궁전은 천제가 사는 '자궁(紫宮)'과 같은 금지구역(禁地)이다"라는 데에서 연유된 것이며, 전체면적은 72만㎡이며, 총 9995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궁전 건축물임

○ 1406~1420년에 건조된 이래로 5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5명의 명나라 황제와 9명의 청나라 황제가 일생을 보냈고, 현재는 105만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이 전시·소장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자금성은 외조(外朝)와 내정(內廷)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문(午門)과 태화문(太和門)을 지나면 흔히 '3전(三殿)'이라 부르는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전(保和殿)이 나타남

○ 3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금성의 내정에 이르게 되고 이곳에는 건청궁(乾淸宮), 교태전(交泰宮), 곤녕궁(坤宁宮) 등이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동육궁(東六宮)과 서육궁(西六宮)이 자리 잡고 있음. 특이한 점은 한족과 만주족이 차례로 점유한 탓이겠지만 외전은 한자로, 내전은 한자와 만주어가 병기된 현판이 특이함

○ 방어의 목적으로 궁전 밖에는 10m 높이의 담이 있는데, 사방에는 성루가 있고 밖에는 넓이 52미터, 깊이 6미터의 해자(護城河)가 흐르며, 4면의 담에는 각기 문 하나씩이 나있는데 남쪽에 오문(午門), 북쪽에 신무문(神武門), 동쪽에 동화문(東華門), 서쪽에 서화문(西華門)이 있음



□ 만리장성(万里長城, 완리창청)

○ 만리장성은 발해만(渤海湾)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약 6,400km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음. 현존하는 만리장성은 명대, 특히 그 후반기에 축조된 것으로, 동쪽은 보하이만 연안의 산해관(山海關)부터 중국본토 북변을 서쪽으로 향하여 북경(北京)과 대동(大同)의 북방을 경유하고, 남쪽으로 흐르는 황하(黃河)을 건너며, 섬서성(陝西省)의 북단을 남서로 뚫고나와 다시 황하를 건너고, 실크로드 전구간의 북측을 북서쪽으로 뻗어 가욕관(嘉峪關)에 이름

○ 지도상의 총연장은 약 2,700km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로서, 북경의 북서쪽 팔달령(八達岭) 부근부터 거용관(居庸關)을 경유하여 대동(大同)의 남쪽 안문관(雁門關)에 이르는 부분은 2중으로 축성되어 있는데, 2,700㎞가 전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음. 성의 외면은 연한 회색의 기와로 덮여 있는데, 이것을 전(磚)이라고 하는데 내부는 점토를 붙여 딱딱하게 만들었음

○ 현재의 만리장성은 거의 명대에 축조된 것으로서, 명은 영락제시대(永樂帝時代)까지 북방민족에 대해 공격적이었으나 그 이후 서서히 방어적으로 되어 역대로 만리장성을 개축했음. 주로 북제시대(北齊時代)의 유적을 기초로 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신설한 것도 있음

○ 장성의 축조는 이미 영락제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우선 산해관(山海關)부터 대동(大同)에 이르는 구간을 강화했고, 이어 정통연간(正統年間)에는 북경의 정면부분이 2중으로 축성되었음

○ 더욱이 오르도스 남단의 장성이 개수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의 장성(隨長城)을 모델로 한 것인데, 몽골족의 침입을 막지 못하여 가정연간(嘉靖年間) 이후 대대적으로 개축을 시작하였음. 이 공사는 동부에서 착수되어 오늘날과 같은, 전(磚)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장성이 만들어졌으며, 서쪽부분은 한대(漢代)에 축성된 이래 거의 버려진 채로 있었으나 오르도스 남단의 장성에 이어 감숙(甘肅)에 이르는 부분이 축성되었고, 이어 난주(蘭州)에서 가욕관(嘉峪關)까지 연장되어 오늘날 남아 있는 장성이 거의 완성된 것은 16세기 말기의 성이라 함

○ 우리 일행은 비교적 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북경에서 가까운 팔달령 인근 장성을 답사하였는데, 약 100m 간격으로 돈대(墩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돈대 밖으로 드러난 성곽을 관찰한 결과 외벽과 성벽 위의 자재, 모양, 색상 등이 다른 것으로 보아 복원 및 보수가 상당히 이루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음



3. 방문기관 면담 내용

(1) 섬서성(陝西省) 문물국(문화재관리국) 방문(면담시간 : 2시간)

: 문화재처(文物處) 주귀영(周魁英 정우꾸이잉) 처장외 1명



문) 성 문물국의 역할과 기능은?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담하며, 조직은 50여명이고 모두 공무원임

○ 주요기능은 섬서성내 각 시의 전체 문화재의 관리 및 보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보수 및 예산업무를 총괄함. 예를 들면, 서안성벽은 시정부가 관리하지만 총괄관리계획 수립, 관리 및 보수예산 배정, 법률검토 등은 섬서성 문물국이 담당

문) 문화재 중장기 관리계획의 유무와 사업계획내용은?

○ 3년 내지 5년 단위 계획이 있고, 15년 장기계획도 수립하여 시행중

○ 계획내용은 주로 문화재의 관리계획과 수리, 보수, 복원 계획 등임

문) 섬서성은 문화유산과 유적이 매우 많은 지역인데, 혹시 성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가?

○ 이 넓은 섬서성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는 없지만, 어떤 유적이나 유구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지표조사를 시행하며, 그것은 다른 어떤 사업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필수적인 사업임

문) 섬서성 조직도에는 문물국 외에 문화청과 여유국도 있는데, 각 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문화청은 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여유국은 관광지 서비스 개선, 입장료 징수, 여행사 관리 등 관광진흥업무를 관장하므로, 문화재의 보호와 수리나 공사 등을 관장하는 우리 문물국과는 그 역할이 구분됨

문) 서로 다른 국간에 협조할 일이나 업무마찰이 발생하면 어떤 해결구조를 가지고 있나?

○ 회의를 통해 해결함. 여유국에서 문화재의 관람료를 받지만 문물국과 회의를 통해 그 곳을 개방할 것인지,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회의를 통해 결정

문) 도시건설은 건설행정부서에서 담당하겠지만 유적지이거나 혹시 건설공정 중에 문화재가 출토되면 건설국과 문물국의 업무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

○ 문화재보호법(文物保護法)이 우선이며, 어떤 경우에도 문화재국의 승인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

문) 혹시 공사 중에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유구가 발견된 경우, 또는 훼손 문화유적이 발굴되어 복원한 사례가 있는가?

○ 아방궁 유적은 3㎢ 정도 되는데 궁궐터 3개소중 1개를 복원하였음

문) 지난번 방문했을 때 아방궁을 답사한 적이 있는데, 복원재료와 규모가 원래의 형태와 다르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 그것은 진정한 문화재 복원이 아니며, 민간인들이 관광용으로 복원한 건물로서, 위치도 현장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원래의 아방궁을 흉내내어 새롭게 건축한 건물임

문)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제 복원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있음. 통상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거나 사료에 의거해서 문화재의 위치나 규모, 형태는 유추할 수는 있지만 상부구조물의 경우가 가장 잦은 논란의 대상이 됨. 유구나 출토유물도 전체의 일부이거나 완형이 아닌 경우가 흔하며, 복원의 경우에도 재료의 변경이나 공법의 변경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논란이나 사례가 없었는가?

○ 상부구조를 모르면 복원은 불가능함. 그래서 아방궁 유적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유적지 보호를 위해 연못은 원형상태로 유지하고 그 뒤에 있는 궁궐유적지는 보호조치를 통해 고형대로 관리하며, 복원사업의 경우에 재료나 공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문) 5년 전 방문 때 시안성벽 복원공사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 명대에 축성된 시안성벽을 시멘트로 보수하는 것을 목격했고 지금도 간혹 유적지에서 시멘트나 플라스틱재질을 발견한 바 있음. 화청지에서도 목격하였는데?

○ 그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원래부터 보존된 원형유물은 원형을 유지하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복원된 부분이 훼손되면 그 부분은 다른 재질이나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보수하기도 함

문) 한국에서는 경주나 공주, 부여 등 고도에서 몇몇 주요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수십 년간 나라의 평성경을 복원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에서는 어떤가?

○ 우리는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상태로서, 현재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 문화재 개방을 통해 얻어지는 관람료 수입과 상품판매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복무자 인건비로 지출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관리비용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국고에 귀속시키는가?

○ 대부분 입장료 징수나 상품판매를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은 국가에 귀속

○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임

문) 우리는 우리 지역이 보유한 몇몇 중요한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노력 중인데, 중국의 경험은?

○ 우리는 이미 1988년에 등재하였는데, 문화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 역사적 사실 등을 정리하여 등록을 추진하면 보통 2~3년 안에 등록이 됨

(2) 섬서성(陝西省) 관광국(旅游局) 방문(면담시간 : 90분)

: 계획개발처(規划發展處) 조명(趙明 자오밍) 처장



문) 관광국의 역할과 조직은?

○ 섬서성은 남부, 북부, 관중 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서성 관광국은 각 지역별 특색에 부합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관광국의 하부조직은 계획개발처(規划發展處), 여행촉진처(旅游促進處), 질량보존처(質量保存處), 관광학교(旅游學校)가 있음

문) 질량보존처의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관광학교의 학제와 위상은 ?

○ 질량보존처는 관광서비스의 질과 량을 관장하고, 관광학교는 직업 전문학교인데, 중국의 학제인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직업)전문학교로서 중학교 졸업생은 3년 과정이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음

문) 금년의 예를 들어서 관광국의 주요기능이나 사업은?

○ 관광국은 한 마디로 여행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섬서성 전체를 홍보업무와, 대만이나 일본, 미국에 가서 선전활동을 하거나, 미디어와 매체를 통한 광고사업도 함

○ 금년의 주요사업은 섬서성 관광홍보와 일상적으로 관광서비스의 질과 량을 개선하는 일 외에, 화산(華山)에서 9월 27일에 개최하는 축제행사를 주관하고 법문사(法門寺)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일도 우리가 관장하였음

문) 관광촉진업무에는 도로 관리, 차량 등 교통행정도 함께 관장하는가?

○ 그건 소관부처가 다르며, 건설부처나 공안부 등의 일임

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어떤가?

○ 80년대에는 미국이 1위였고, 90년대에는 일본이 1위였음.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는 다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일본이 2위로 밀렸으며, 대만과 한국, 유럽에서도 많이 오는 편임

문)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관광객 수는?

○ 2008년의 경우에는 전체는 1억 명 정도였고, 그 중 외국인은 126만 명이 방문하였음. 금년 상반기에는 5,300만 명이 왔는데 그 중 외국인은 70만 명임

문)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추산자료는?

○ 외국인은 1인당 평균 570달러를, 내국인은 530위안을 지출

문)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실태에 대한 자료는?

○ 중국인들은 홍콩, 대만, 태국, 상가포르 등으로 많이 나가며, 최근에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문) 관광지나 유적지에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내는 입장료수입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거나 사용하는가?

○ 화청지는 회사단위에서 관리하므로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관리회사가 사용하는데, 관리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지불함

○ 반면에 병마용은 국가직영이므로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며, 거긴 공무원들이 근무함

문) 화청지를 관리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

○ 여행집단공사라는 회사로서, 민영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였지만,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공익기업임

문) 그런 공익회사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관광국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 관광국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회사에서는 직접 경영을 하는 것임

○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념품이나 관광물품은 관광국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제작한 상품의 경우에도 품질관리는 관광국에서 함

문) 민간사업자, 회사, 여행사, 숙박업소, 기념품상점 등에 대한 지원이나 그들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지원은 없으며, 민간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임. 다만 우리는 관광서비스의 질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

문) 화청지를 비롯한 다른 관광지에서 예술행사를 한다는 광고선전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예술행사는 누가 개최하는가? 그리고 중국에 축제는 어떤 것이 유명한가?

○ 화청지의 연극은 여행집단공사의 자체 행사로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관광지의 관람객을 늘리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임

○ 중국의 축제는 명절의례가 유명하며, 9월의 문화절에는 특히 많은 예술단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개최됨

문) 병마용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섬서성 정부에서는 병마용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1979년 발견이후 섬서성의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섬서성 박물관에 매우 훌륭한 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았고 호텔이나 가이드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 관광이 활성화되어 섬서성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중국 전체로 봐도 몇몇 우수한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급증하였지만 병마용의 발굴, 공개 이후에는 중국 전체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함

(3) 하남성 낙양시청(河南省 洛陽市廳) 방문(면담시간 : 3시간)

: 관광국(旅游局) 위입봉(魏立峰 웨이리펑) 국장

왕매정(王妹婷 왕메이팅) 과장

문화재관리국(文物管理局) 여걸(余杰 위지에) 부국장



문) 먼저 관광국의 대표적 업무나 사업은?

○ 일상적인 관광진흥사업을 총괄하며, 예를 들면, TV, 신문, 잡지를 통한 홍보활동, 축제 개최, 지도 제작, 관광 코스 개발, 관광DB 제작, 책 출판, 여행사 관리 등을 담당

문) 중국에서의 낙양은 어떤 도시인가?

○ 낙양의 역사와 관광은 동일한 하나의 주제인데, 흔히 '천년제국'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낙양은 13개 왕조의 도읍지이자 목단꽃의 도시임

○ 매년 4~5월 목단꽃 축제가 개최되며, 낙양은 동서문명의 교류를 상징하는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임. 백운산(白云山) 등 많은 명산이 있어 '산수낙양(山水洛陽)'으로 불리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산수관광도시이기도 함

○ 그 뿐 아니라 혹시 "낙양에 한 번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중국 옛날 속담을 알고 있는가?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문) 우리 한국에는 '낙양의 지가(紙賈)를 올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학문의 도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임. 그리고 '낙양성 십리 하에

영웅호걸이 모두 북망산에 누워있다'는 가요가 있는데 그 노랫말의 의미는 '영웅호걸이든 보통 사람이건 모든 인생은 유한하다'는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말한 속담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그리고 국제적인 관행은 흔히 시안을 실크로드의 동단이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한국의 경주에서 로만그라스가 출토된 것과 서역인 상 등을 근거로 실크로드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낙양이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이라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말인가?

○ 시안보다는 낙양이 더 오래된 도시이고 더 많은 교류의 흔적과 기록들이 남아있음

○ 다만, 시안이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秦)의 왕도이자 관광지로 더 널리 알려진 덕에 실크로드의 동단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낙양이 동서문명교류기의 중심도시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특히 화허문명(華夏文明)의 발상지이자 하(夏), 상(商), 주(周)에서 수(隨), 당(唐)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면 낙양이 실크로드의 기점이라는 내 말이 이해가 될 것임

문) 낙양시의 문화유산 관리와 문화유적 보호정책은?

○ 낙양은 세계문화유산인 용문석굴(龍門石窟)을 비롯하여 최초의 불교사원인 백마사(白馬寺),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고묘박물관(古墓博物館),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림사(少林寺) 등이 있음

○ 중국정부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을 투입하여 보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낙양시 정부에서도 1000년의 역사도시답게 고묘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목단꽃을 주제로 한 축제는 4대 명절 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은지 오래고 올해로 제 27회 축제를 개최하였음

문) 당나라 때 중국황제가 우리나라 신라의 여왕에게 목단꽃그림을 선물한 기록이 있음. 목단꽃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 자생하는 꽃인가? 그리고

그 목단꽃을 이용한 축제가 문화관광상품이 되는가?

○ 목단꽃은 우리 낙양의 문화전승물로서 예로부터 죽 그래왔음. 오늘날에는 목단의 품질개량을 통하여 9개의 색상과 6개의 모양을 가진 꽃으로 발전하였는데, 그림, 사진, 전시회, 꽃 화원, 정원수 등으로 활용되고, 목단꽃을 이용한 축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임

○ 물론 낙양 외에 사천성(四川省), 강서성(江西省), 산서성(山西省) 등 4곳에서 목단꽃 축제를 개최하지만 우리 낙양 목단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유명함

○ 심지어 목단꽃 축제기간에는 낙양의 관광객이 급증하여 낙양이 물들고 사람들로 넘치는데, 사람들은 예로부터 “계림산수 목단갑천하(桂林山水 牡丹甲天下)”라는 말을 사용하였음

문) 고묘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의 운영주체는? 박물관은 건립비와 운영경비의 부담주체는? 입장료 수입 관리는?

○ 박물관은 우리 문물관리국이 관리하며, 건립비와 운영경비는 당연히 정부재정에서 투자되고, 입장료 수입금은 운영보조금과 근무자 급여, 장려금 지급 등에 쓰임

문) 현재 관광국이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 또는 추진중인 주요사업은?

○ 실크로드의 동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모든 역사적인 사실관계나 기록, 문물로 미루어 볼 때 낙양이 실크로드의 동단이라는 생각은 변할 수 없음

○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정체성 확보는 관광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임

○ 불교 전래의 시발점이 된 백마사(白馬寺)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사업임

○ 하남성 최고봉인 백운산(白云山)에 스키장시설도 조성중이고 황하(黃河), 화하(華河) 등 강을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 중임

○ 북방산수와 남방의 물, 경관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낙양인데,

이런 지정학적, 지리적, 역사적, 자연적 조건을 갖춘 낙양을 앞으로 중국 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 낙양에 대하여 더 알리고 싶은 말은?

○ 낙양은 오늘날 쇠락한 고대도시로 인식되고 심지어 성도도 인근 정주(鄭州)에 빼앗겼지만 사실은 예로부터 원근을 아우르는 매우 큰 대도시였으며, 많은 왕조의 왕도였으니까 그건 당연한 사실임

○ 동한(東漢) 시기에는 300만 명이라는 당시로서는 유래가 드문 국제적인 도시였는데, 당연히 그 명성도 세계적인 대도시였고 누구나 와 보고 싶어 하는 도시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즉, 서양의 로마와 같은 도시가 바로 동양의 낙양이었던 것임

○ 일본 교토는 바로 낙양과 같은 도시 구조를 본 떠 만든 도시로서, 동양의 많은 도시들이 바로 낙양의 도시구조를 벤치마킹 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지명, 거리 명칭, 가게 명칭에 낙양이라는 지명이나 명칭이 흔하고 많이 사용됨

문) 낙양의 연간 관광객 수 통계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액 추계는?

○ 아직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3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내국인을 포함하면 연간 낙양의 관광객 수는 4,700여만 명에 이름

○ 특히 관광객 중 4분의 1은 목단꽃 축제기간에 방문하며, 관광객 소비지출액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음

문) 문물관리국의 주요업무는?

○ 우리 낙양시 방문을 환영하며 우리는 오래 전부터 한국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음 (부여군과 낙양시가 자매도시임)

○ 낙하(洛河) 이하 땅이 바로 낙양인데 이 곳은 중국의 원시 고대문명 발상지로서, 하(夏)·상(商)·주(周)·수(隨)·당(唐)에 이르는 13왕조의 도읍지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유한 지역임

○ 그래서 우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21개의 유적을 보호 중이며, 성급유물(省級遺存) 105개, 40만 점의 유물을 9개의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음

문) 그런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면 오늘날 어느 나라나 '개발과 보존의 갈등' 문제가 종종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을텐데?

○ 과거에는 문물 보호 의식이 약해서 시 건설국과 문화재관리국이 충돌한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결국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유적이나 문물이 훼손된 사례도 많았음

○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도시에서 도시계획은 중요한 사업이고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문화재의 보호는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문화정책에서 문화재 보호가 우선임

○ 그래서 우리는 1950년대 이후 도시건설사업 시에 문화유적이 밀집한 구도심을 피해서 신도시 낙양을 건설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낙양방식(洛陽模式)'이라고 부르고 있음

문) 정책결정만으로 그런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정책결정과정이 법제도를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는가?

○ 법제도를 통하여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음. 건설이나 건축시에 문화재관리국에 먼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건설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

○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려면 건축의 주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면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허가를 하든지 불허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낙양방식'임

○ 성인민대회(省人民大會) 때 이러한 법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많음

문)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 「문화재보호법(文物保護法)」, 「낙양시용문석굴보호조례(洛陽市龍門石窟保護

條例)」, 「낙양시고성보호조례(洛陽市古城保護條例)」, 「낙양시수당성읍보호조례(洛陽市隋唐城邑保護條例)> 등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문) 법률과 방식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추진한 구체적 사례나 사업 성과는?

○ 낙양시정부에서는 주요 유적지 보호를 위해 4억 위엔(760억원)을 투입해서 주요 유적 주변 건물들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음

○ 주요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위엔(665억원)을 투입해서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그 결과 유적지 보호는 물론 낙양에는 중국 최대규모의 고묘박물관(古墓博物館)과 8개의 주제별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음

문) 법적 장치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 우리는 워낙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호해야 하는데, 대유적지만 해도 이하(伊河), 은사 상류, 수, 당 유적지 등 5개에 이름

○ 지하유적과 대규모 유적, 그리고 발굴유물에 대한 전시를 해도 일반 국민이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도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명백히 설득하기에는 사실 고민도 있으며,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이해도가 사업추진의 관건임

문) 시정부의 예산 중 문물국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시정부의 재정수입 200억위엔(3조8천억원) 중 2,000만위엔(380억원)정도임

문) 0.1%의 재정수입으로 그 많은 일들의 수행이 가능한가?

○ 건축물을 짓거나 박물관 운영, 국가 중요유물관리비 예산과 문화유적 복원 예산은 별도로 계상되고, 그 예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직접 경비만 반영된 것임

문) 낙양시의 문화보호 노력은 모든 고도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데, 낙양시의 주요시책에 이러한 철학 등이 담겨 있는가?

○ 2006년 이후 낙양시의 시정 3대 목표는 ① 옛성 복원과 새로운 농촌 발전, ② 문화관광 발전, ③ 문화산업 발전으로 설정되어 있고, 3대 방침은 ① 환경 개선(유적지 주변 경관), ② 고묘유적 발굴, ③ 발굴유물 전시 등임

○ 이러한 시정 목표와 방침에 따라 시행한 3대 핵심사업은 ① 위(魏)나라 고성(旧城) 복원 사업, ② 수당유적지(隋唐遺址) 보존사업, ③ 3개의 문화유적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지난 3개년 간 이루어진 주요 성과임

4. 조사 시사점

(1) 화청지의 문화유산 활용 스토리텔링 기법

○ 당현종과 양귀비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오는 화청지는 단순한 유적지의 복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법을 선보이고 있었음

○ 화청지의 내부는 복원을 하였고,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목재는 별도로 실물을 전시해 두었음

○ 내부 벽면에는 유적, 유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스토리텔링기법으로 전시해 두었고, 야외무대에서는 연극으로 구현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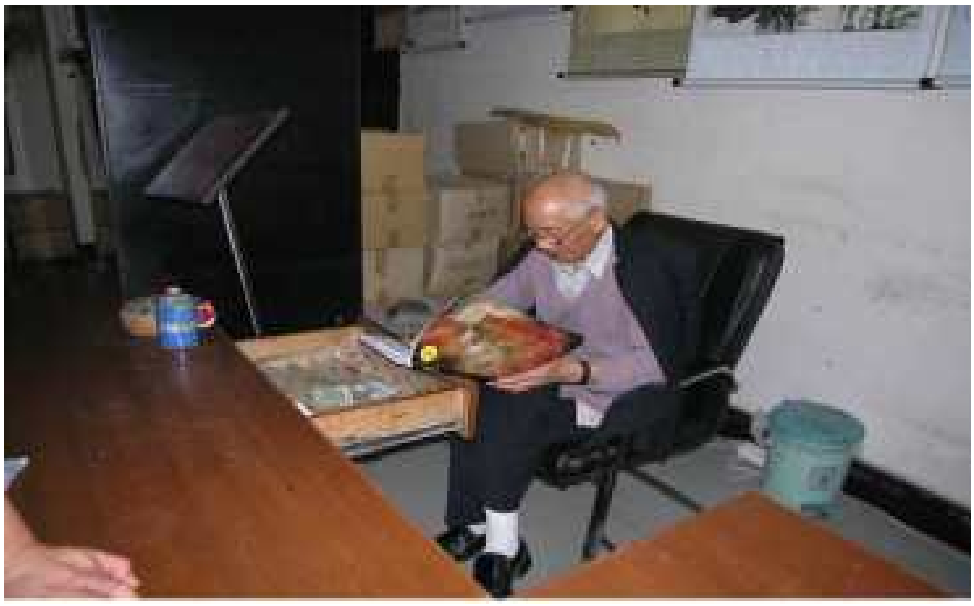
(2) 병마용 구조물의 재활용 사례

○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위한 상징물로 제작한 대형 병마용 구조물과 소녀상을 병마용 박물관의 전시물과 관람객들의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활용



(3) 병마용 최초발굴자 활용

○ 병마용 최초발굴 농부는 박물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병마용박물관 도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필서명을 해 주는 것으로 관람객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비교적 비싼 박물관 도록의 판매증진에 기여



(4) 유명인사 방문기념 사진 활용

○ 관광지 주변의 식당에서는 과거에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유명인사의 방문기념 사진을 대형판넬로 제작하여 식당의 판촉 및 신뢰도 제고 소재로 활용



(5) 복원재료의 융통성 발휘

○ 문화재 복원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복원 문화재의 재질에 관한 토론과 현장 확인을 해 보았더니, 석재 대신에 시멘트를 활용하거나 목재 대신에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

○ 문화재 관리당국자에게 확인하였더니, 원래부터 보존된 문화재는 반드시 원형보존이 원칙이지만, 새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진정성을 추구할 수 없을 경우에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일임

(6) 발굴유물 재현품 관광상품 판매

○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유사한 재현품을 제작하여 관광상품이나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매우 효과적인 문화상품으로 활용





(7) 도로 조형물, 꽃길 조성

○ 도로조형물, 보도재료, 조경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례임

○ 석조유물도로에는 석재 비닥재를 사용하고 디자인은 불교유적의 분위기에 맞추어 연꽃 문양으로 경계석을 설치하였고, 특히 꽃길 조성은 화단 보다는 이동이나 분갈이, 수종 교체가 용이하도록 화분을 이식하지 않고 배양분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8) 문화재 추정복원, 또는 중창 개념의 도입

○ 낙양시는 유구만 발견된 낙양성의 일부 구간에 대한 복원공사를 진행 중인데, 성벽 일부와 동문 및 해자복원공사에서 지중의 유구는 보존하되 그 위에 옛 문헌과 지도, 그림 등을 참조하여 '복원'이 아닌 '중창' 개념의 문화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 현재의 공사는 기록과 그림, 기타 당대건축물의 구조를 통하여 추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복원'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